

행정시 '교육행정협' 구성되나

돌봄·다문화 등 협력 요구에 맞춰 협의회 설치 추진
교육지원청, 조례 개정 별개로 협약 체결 운영 검토
"협업 필요한 사업 많아 정례적 협의로 시너지 기대"

최근 제주지역 돌봄 수요 해소 등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 확대 요구 논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지원청과 행정시가 참여하는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에 따르면 지역교육행정협의회는 행정시와 교육지원청 간에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다루기 위한 취지로 설치된다. 교육감과 도지사를 공동의장으로 둔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처럼 해당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교육청에서는 향후 협의회 가동 시 지자체와 협력해 통합

돌봄, 다문화가정 취학 전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 시니어 일자리 활용 학습 보조 인력 투입, 학교 문화 예술교육 실시 등을 구상하고 있다.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서귀포 시민이 아니라 재단법인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을 포함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으로 '명품 교육도시 서귀포'를 강화하겠다는 안을 짜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엔 강병삼 제주시장이 읍·면·동 찾아가는 소통의 날을 통해 지역민들이 학교 수영장 등 시설 개방을 건의하자 추후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꾸려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현행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준비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양 교육지원청과 행정시 간에 지역 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설치 근거를 담게 된다.

제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돌봄, 다문화 등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늘고 있는 만큼 정례적인 기구체를 통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난달 24일 시교육청의 요청으로 제주시장과 교육장이 직접 만나 교육행정협의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관계자는 이어 "조례 개정과 별개로 내년 초까지 행정시와 협의회 가동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귀포시교육청 관계자도 "조례 개정과 무관하게 올해 말까지 3개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해 협의회를 만드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며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는 주민(왼쪽)들과 제주도청 앞에서 사업 철학을 주장하고 있는 반대 주민들.



한 지봉 두 가족 선홍2리 동물테마파크 사업

조건부 연장... 여전히 찬반 '평행선'

찬성 측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등 꼭 필요한 사업"
반대 측 "난개발로 자연 훼손·사업자 불법 행위 지속"

제주시 조천읍 선홍2리에 추진 중인 동물테마파크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날 찬성과 반대 측 주민들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선홍2리 추진 위원회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홍2리 대다수 주민들은 동물을 테마로 한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문화·예술을 테마로 하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적극 찬성한다"며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 기간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사업 찬성의 이유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마을 소득 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부지역의 상징적 관광지가 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추진위원회는 또 "마을 갈등과 분란을 야기시키는 현 마을이장 부부는 즉각 노인회장을 마을 회의에 복귀시키고 노인회장과 전 개발위원 등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해 마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이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선홍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도 약 1시간 뒤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조례가 규정한 기준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의 기간 연장을 즉각 불허하라"고 말했다.

반대책위는 "지난해 개발사업 심의위가 '국제 실내습마장 완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했지만 사업자는 습마장 착공조차 하지 않은 채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며 "조건을 불이행하고도 연장을 신청한 사업자를 제주도에서 영구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탐사르습지도지로 지정된 국제보호지역이 수많은 멸종 위기 야생생물들의 서식처를 위협하는 이런 사업이 '제주의 미래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이나"며 "만천하에 드러난 사업자의 불법과 지속적인 허위 보고서 제출, 악의적 마을 갈등 유발 행위에도 눈감고 투자유치라는 이름에만 매달린 제주도는 결자해지해 난개발 사업을 불허하고 선홍2리 공동체를 살려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이날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변경 심의안'에 대해 조건부 2년 연장 의결 결정을 내렸다. 김도영기자



아무리 추워도... 파크골프 기온이 크게 떨어진 1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파크골프장에서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다. 이상국기자

"아파트 단지 20m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내린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서귀포시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5% 상태로 20m가량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

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토대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가 인근 도로와 직접 연결됐고, 외부 차량 통제도 없으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반인권적 압수수색 규탄" 제주대책위, 인권위에 진정

공안탐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제주대책위)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기 암 환자인 전 진보당 위원장에 대한 국가정보원과 제주경찰청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감금 및 병원 이송 방해 행위와 반복적인 출석 요구 등은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가보안법에 기반한 색깔론 공세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정부를 비난한 제주대책위는 "지난 11월 9일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수사관들은 말기 암

환자인 전 위원장이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것을 방해했고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남편을 막기까지 했다. 이는 생명권 및 건강권을 모두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제주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공안탐압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도영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20년 경력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누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로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한라대,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국제보청기), 한라체육관, 일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요목

유라조생	2~3년생
유라실생	5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지향	3년생
빙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우량
총사업등록번호 제 18-서귀포-2021-20-02 호
감귤요목

우수한 품질의 감귤요목만
생산하여 직접 판매합니다

레드향 · 천혜향 · 황금향
한라봉 · 궁천
오하라베니 · 조경용 하귤

※ 현장방문 환영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68-168

제주감귤요목영농조합법인
010.7204.1286